

새롭게 열린 「백제문화권 개발」



이 명 수
(李明洙)

충청남도
정책실장

1. 들어가는 말

백제역사재현단지 기공식

지난 98년 4월 21일 부여 낙화암 건너편 규암면 합정리에서는 우리 민족문화사에 큰 획을 긋는 하나의 행사가 있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의 가장 핵심 시설이라 할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이 그것이다.

이날의 기공식은 행사에 참석했던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체주민들에게 더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안겨주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1300년 전 찬란한 백제의 역사 문화가 긴 잠에서 깨어났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이기도 하였다.

기공식장 한편에서 깊이 패인 주름살 위에 더운 눈물을 적시던 어느 노인의 모습을 바라보

며, 백제문화권역 사람이 아니고는 느낄 수 없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경험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기공식을 단순한 하나의 행사로만 받아들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정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는 토대로 새롭게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타 지역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행사를 두고 다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듯 하다. 지역정서를 이용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을 추진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 그 첫 번째 문제의 제기이다.

그리고, IMF라는 경제난국에 처해 있는 현실점에서 1,700억원이나 소요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것을 두번째 의문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나름대로 그 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지만, 「백제문화권 특정 지역 종합개발사업」이 그동안 겪어온 모진 비바람과 추진과정을 모른 채 단순히 「백제역사재현단지」의 기공식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듯하여 우선 안타깝게 여겨진다.

II.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한 인식과 이해

어찌다가 백제역사가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어찌 한 지역만의 문제로 비쳐지게 되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지역감정을 이용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어찌 지역차원의 숙원사업이냐며 반문하고 계셨다. 또, 그러한 비판 자체가 오히려 지역감정을 악화·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며 거침없이 말씀하고 계셨다.

적어도 평소 백제문화권 개발에 관심과 애정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논리나 주장에 대하여 단호히 고개를 가로젓는

다는 것이다.

걱정과 우려·비판보다는 격려와 환영·기대의 목소리가 더 높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며, 특히 문화재 정비·복원에 직접 참여해 온 상당수 전문가들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을 때 더욱 큰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사는 것은 짧아도 문화는 영원한 것”, 어려운 시기일 수록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의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수립 8년만에야 첫 삽

지나친 정치논리 보다 개발논리·행정논리로 접근해야 하며, 계획수립 8년만에야 첫 삽을 뜨게 되었고, 또 이번엔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비판적 시각을 덮고도 남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늘 우리 주변에 맴돌면서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백제(百濟), 그 백제란 특히 우리에게 어떠한 나라인가? 지금으로부터

1300여년前, 한반도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중국 요동반도까지 공략한 해양대국이었고, 안으로는 신라·고구려와 함께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축을 벌이면서도 섬세하고 세련된 문화로 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문화예술 대국이었던 나라가 바로 백제가 아니었던가?

그러한 백제가 날로 국세가 팽창하면서 이를 두려워한 국제정세 속에서 나당연합군에게 참패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래도 고대 한반도의 역사적 중심을 차지해 왔던 우리 민족의 큰 뿌리였음에는 틀림이 없다.

신라권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다보탑·황룡사 9층탑은 물론 석굴암까지도 백제인의 참여와 협조가 아니었다면 완성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리스의 어느 철학자는 “짐승이나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것을 운명의 신에게 감사한다”는 말

을 했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혈통과 문화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갖는 것이 본능이다. 우리는 백제가 단순히 한반도의 한 지역을 관할했던 고대국가의 하나였다는 생각보다는, 역사書마다 그 활동과 내용이 각기 다르게 기술되고 굴절되어 왔다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고대사는 백제, 신라, 고구려 등의 문화가 조화와 균형 속에 새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동북아시아에 우뚝 설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특정한 문화를 평가절하하거나 절상함이 없이, 또 선입관·선입견을 떨쳐 버리고 「있는 그대로」 추출해 내야만 진정한 민족 문화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문화권이 정부의 계획적인 개발과 지원아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에 비하여 백제문화권의 시계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낙후지역 개발의 웅색한 명분 속에 잠시 스쳐가는 관심의 영역으로만 치부되어 왔다.

이에 지난 90년 12월, 백제문화권을 신라문화권과 같이 국가투자의 기속력이 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종합개발하고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되었고, 93년 6월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얻어 「특정지역」으로 지정·공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1년6개월에 걸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4년 12월에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국가차원의 개발의지와 투자가 한꺼번에 쏟아부어질 줄만 알았다.

그러나, 이렇게 확정된 종합개발계획도 정치적인 논리로 다시 시계바늘은 늘 과거를 가리키고 있을 뿐이었다. 상당기간 뒷전으로 밀리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금년 4월 21일에서야 비로소 시계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차원에서 개발키로 방침을 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지 실로 8년만

의 일이다.

햇볕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바래면 야사(野史)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이제 백제문화도 새로운 햇살을 받게 된 것이다.

만일, 얼마 남지 않은 20세기가 다 지나가도록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아찔한 생각을 그나마 씻어준 셈이다.

Ⅲ. 백제문화권 개발에 있어 앞으로의 과제

지역의 숙원사업 차원을 넘은
국가 차원의 당면 개발사업

이제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착공됨으로써 백제문화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보다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만 할 것이다.

우리道에서는 이러한 백제문화가 당초 의도한대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사업비와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이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건설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우선 사업비 문제에 있어서는 종합개발계획이 91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물가수준으로 확정됨으로써 현재 여건에 맞지 않는 만큼 이를 현실화하도록 하고, 사업기간의 경우도 사업착수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 준비기간의 과다소요(특정지역 지정과 종합개발계획 확정)에 모두 5년 소요)로 실제 사업추진이 95년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 2001년에서 2005년까지로 연장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자유치 계획도 민자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국비지원 비율을 현재의 15%에서 4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중이다.

이와 같은 내용과 논리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함께 관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이론적·실증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가지 꼭 추가할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 같

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수십 년에 걸쳐 그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왔던 것은 바로 정부차원의 관심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특정한 지역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당연히 개발하고 투자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만 하겠다.

또한, 이제부터라도 백제문화권 개발을 추진하면서 간과해선 안될 몇 가지가 더 있다.

첫째, 「종합개발」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모든 개발에는 「문화유적」의 발굴·정비·복원이 선행되거나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하드웨어」 측면의 개발 노력과 함께 「소프트웨어」 차원의 정비·복원·재조명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백제서」, 「백제정신」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부여·공주·익산지역만을 「특정지역」으로 국한한 것

은 일응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이질 수 있으나, 그 외의 다른 백제문화권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백제문화유적 정비·복원사업은 특히, 특정지역 범위에 불구하고 대상사업에 따라 광범위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고증」과 관련해서 가능한 한 현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지연된 이유중의 하나로 고증이 어렵다는 점을 쉽게 거론한다. 실제로 전문가 회의에서 좀처럼 고증과 관련하여 결론이 나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당대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내려 재현하지 않고 후세·후대에 자꾸만 미룬다면 그럴 수록 「고증」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마주치는 문화유적이거나 고찰 중에 상당수가 본래의 모습보다는 몽고의 침입이나 임진왜란 등 다른 사유에 의해 소실된 후 재건립·증축·증창된

것이 많은데, 만일 그와 같은 노력이나 시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백제문화권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시간에 쫓겨 「줄속」을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자칫 백제역사문화 유적을 재현하는 일이 백제문화 유적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트리거나 훼손시키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백제가 한성, 웅진, 사비 등 여러차례 도읍을 옮겼고 패망한 나라로서 그 역사문화의 실체를 재현하고자 하는 「역사 재현단지」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여섯째, 백제문화를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중국 등 「국제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조차 백제문화를 연구하는 팀이 있고 백제문화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서양에까지 백제문화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일이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일곱째, 백제문화권 개발이 지역경제와 나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충청지역 주민들은 중앙에 건의하고 요구하는 노력 이외에 우리 스스로 백제문화권 개발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서 해결하려는 백제문화의 주역·주체로서의 능동적인 역할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IV. 맺음말

역사란 단절하면서 전승을 하고, 또 승계를 하는 가운데 단절하는 속성을 지녔다고 한다.

세계의 문화유산인 그리스의 역사가 그렇고, 로마의 역사가 그렇다. 그들의 역사가 세계인에게 자랑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민족의 긍지와 전통으로 바라보고 일구어냈기 때문인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문화가 상품이 되고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이제야 말로 문화를 발전의 중심에 세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을 통하여 충남이 21세기 원대한 민족문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문화대국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부여 출신 신동엽 시인의 詩 한 귀절을 다시 음미해 본다.

“백제, 예로부터 이곳은 모여 썩는 곳, 망하고 대신 거름을 남기는 곳! 금강, 예로부터 이곳은 모여 썩는 곳, 망하고 대신 정신을 남기는 곳!”

이처럼 멸망은 했으나 거름과 정신으로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백제인 것이다. 우리가 21세기를 넘어서 백제문화권을 개발하고 다시 복원하여 후손들에게 길이 남기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열린충남